

# 전주시 · 자율방재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앞장

### 도심 주요 도로 · 버스승강장 800여 개소 소독 실시 · 35개 동 주민센터에 소독제 비치 등 시행

전주시가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해 결성된 민간 자율방재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 자율방재단(단장 김동현)은 25일 간담회를 열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과 대로, 골목길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방제차량 3대와 완산·덕진구청에 배치된 병해충차량 4대 등 총 7대를 동원해 도심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율방재단은 오늘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2주 간 전주시 버스승강장 중 유계승강장과 방한테트 약 800여 개소에 대해 구간별로 나눠 방역을 추진하는 한편, 방제차량과 병해충차량을 활용한 소독이 어려운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방재단은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추위를 막아주지만 공기순환이 원활치 않은 유계승강장과 방한테트 등에 대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승강장에 소독을 실시한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자율방재단은 시민들이 각 가정의 문고리나 책상 등 자주 사용하는 부위의 표면을 소독할 수 있도록 35개 동 주민센터에 소독제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또,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소독제를 배부함으로써 원활한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시와 전주시 자율방재단은 25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과 대로, 골목길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현 전주시 자율방재단장은 이날 "전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율방재단원들과 함께 소독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이 하루 빨리 안전해질 수 있도록은 힘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지난해 모래주머니 2만포를 제작해주는 등 자율방재단이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전주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자율방재단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측 불가능성과 대형화로 재난분야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구상된 단체로 지역의 지형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재해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구성 후 현재 318명이 활동 중이다. /김윤상 기자

##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

### 전주시, 아파트공동체 7개 등 69개 공동체 최종 선정

전주시가 올해 이윤을 창출하는 창업공동체 육성하는 등 자생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공동체 키우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웃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0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아파트공동체 7개 △희망단계 5개 △이음단계 17개 △디딤단계 40개 등 69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먼저 방삼마루 공동체(대표 김옥분) 등 7개 아파트공동체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사업으로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웃간 벽을 허무는 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한 디딤단계(1단계)와 이음단계(2단계), 희망단계(3단계)의 경우 기존과 달리 마을공동체와 창업공동체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시는 올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을 앞둔 희망단계로 5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이음단계 28개 공동체와 디딤단계 13개 공동체 등 41개 공동체를 창업공동체로 선정해 수익을 창출해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

한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희망단계 공동체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과정에 대한 자문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사업에 참여한 69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야호시장 △공유회 △포럼 △삼삼오오 사업 △공동체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올해 참여한 공동체와 그간 육성해 온 온두레공동체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체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20여 개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온두레공동체 예비학교도 운영했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올해 온두레공동체 시행 6년차를 맞아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정이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가 올 해 동안 계획하고 꿈꾸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마스크 판매 허위 글로 2억여원 채진 30대 검거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틈을 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2억여원을 채진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현재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공장을 운영 중이다. 시세보다 싸게 대량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유동업체들로부터 2억 3500만원을 채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업체들에게 중간 유통업자를 끌어들이 신뢰를 쌓은 뒤, 선입금을 하도록 유도, 돈을 받지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쾌적하고 청결한 전주 만들기 집중

###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 올바른 배출방법 등 위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전주한옥마을 등 국가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찾는 여행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완산구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양심을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는 등 쾌적하고 청결한 전주 만들기 집중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구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알리고, 상습 불법 생활쓰레기 배출 및 투기를 근절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제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공원과 공한지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골목길 들고 돌아서'를 슬로건으로 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전주 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구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구는 쓰레기 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현장 활동도 강화한다.

기동처리반은 매일 현장 순찰을 통해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법투기자 감시와 과태료 부과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나아가, 구는 현재 운영 중인 175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전수조

사도 실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투기자 상시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투기자도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완산구청 1층 로비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올 상반기 중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해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더럽혀진 동네의 모습을 알리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깨끗한 전주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덕진진료실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 평일 24시까지 · 주말 · 휴일에도 9시~오후 6시까지 진료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덕진진료실 선별진료소를 평일 24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의심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4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2명 증원에 신속한 진료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진료시간 연장으로 주말이나 휴일, 늦은 밤에도 감염 의심환자들이 언제라도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일부터 덕진진료실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를 진행해 왔다.

덕진진료실 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재까지 920명의 의심환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59명을 진료하고 5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진병원에서도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증상자를 한 분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확진자 초기 발견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